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청년여성 취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강민정 부연구위원 (Tel: 02-3156-7137 / e-mail: kangmj@kwidmail.re.kr)

고용구조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청년여성 취업 활성화 방안*

“ 최근 청년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취업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 중 하나임.

청년 중에서도 여성들은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취업에 있어 남성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 전, 노동시장 이행 과정, 노동시장 이행 후 단계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그동안의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재분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파악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장기적 정책 개선사항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음. ”

청년여성 취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원자료 분석 및 청년여성 대상 심층인터뷰를 통해 밝힌 청년여성 취업 애로요인은 다음과 같음.

- 노동시장 이행 이전 단계에서는, 취업률이 낮은 전공분야에 여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청년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는, 주거독립의 어려움, 청년취업지원사업의 편차가 크며, 기업의 여성 채용 기피 현상이 문제점임.
- 노동시장 이행 이후 단계에서는, 질 낮은 일자리로의 진입과 이동,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 유지의 어려움,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로 나타났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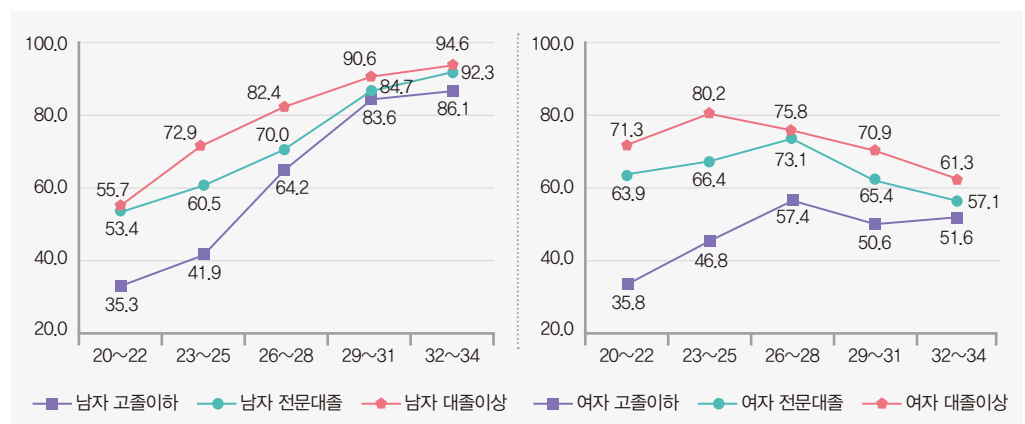
- 첫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에 청년여성 정책수요 반영하여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및 연수기회 제공,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추진체계에 여성전문가 참여를 제안하였음.
- 둘째, 취업취약 전공분야 여대생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전공별 인력수요에 기초한 대학입학 정원 조정 및 진로교육 강화, 취업취약 전공분야 취업지원대상에 자연계 졸업자 포함,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정책에 자연계 여대생 취업지원 추가를 제안하였음.
- 셋째, 지방거주 청년여성 대상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의 주택지원 사업대상 확대, 정부의 주택지원 사업에 일정 비율의 여성쿼터나 우선순위 부여, 지방 거주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지원 사업을 제안하였음.
- 넷째, 청년취업지원 사업의 편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 강화·확대,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지역별, 성별 성과 및 수요 분석이 필요함.
- 다섯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검지표에 ‘여성인력 신규 채용 현황’ 포함하며, 시행계획서에 ‘고용형태별 여성인력 현황’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음.
- 여섯째, 청년들의 경력지원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제도 개선, 일곱째, 고용평등상담 기능과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 확대, 명예 고용평등감독관제도 의무화, 모든 지방노동청에 근로감독 담당부서와 전담인력 강화를 제안하였음.
-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문화 확산을 제안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 ④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청년여성에게 특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 ▶ 그리고 여성고용 문제는 경력단절이나 일·가정 양립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기혼자나 유자녀 여성이 정책대상임.
- ④ 그로 인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거나 노동시장에 진입 초기 단계인 청년여성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④ 따라서 청년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청년남성들과는 다른 애로사항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그림 1] 연령별 교육수준별 청년층 고용률



주) 원자료는 연령 5세 단위로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본 결과에 오차가 있음을 감안해야 함.
 자료: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④ 본 연구는 청년여성의 취업애로요인을 밝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노동시장 이행 이전 단계(학교), 노동시장 이행과정 단계(구직), 노동시장 이행 이후 단계(경력지속) 등 총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음.

노동시장 이행 이전 단계

- ④ 먼저 노동시장 이행 이전 단계에서는 첫째, 취업률이 낮은 전공분야에 여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둘째, 청년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 대학 졸업자의 성별 전공계열별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고용률이 높은 전공인 공학계열은 남성의 비중이 훨씬 높고, 고용률이 낮은 인문 및 사회계열에는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남녀 모두 고용률이 낮은 자연계열에도 역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었음.
 - ▶ 따라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전공계열을 중심으로 하여 융합분야로 진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 이행 과정 단계

📍 구직과정 역시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지원기관을 더 활용하고 있었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남성은 외적인 이유를, 여성은 내적인 이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 따라서 대학 내 경력개발센터에 여학생의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이행 후 경력개발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링이나 특화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표 1〉 청년층(15-29세) 대졸자의 전공계열별 고용률

(단위: %)

		인문사회	예체능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총계
전문 대졸	남자	73.0	78.3	94.1	77.5	81.5	75.6	78.3
	여자	73.0	74.7	79.6	73.1	70.5	81.4	75.4
	전체	73.0	75.4	80.0	74.9	79.7	80.5	76.5
4년제 대졸 이상	남자	68.2	79.8	74.0	72.3	75.0	80.1	72.5
	여자	68.3	75.5	75.7	67.9	80.5	77.9	71.9
	전체	68.2	76.8	75.2	69.2	76.6	78.2	72.1
전체 대졸자	남자	69.6	79.2	74.9	74.7	78.3	77.4	74.9
	여자	69.8	75.1	77.3	69.8	77.4	80.0	73.3
	전체	69.7	76.1	76.8	71.4	78.0	79.6	73.9

자료: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다음으로 노동시장 이행단계에서는 첫째, 주거독립의 어려움, 둘째, 청년취업지원사업의 편차, 셋째,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음.

-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거주 청년여성들은 자신들의 구직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거주지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며,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주거비의 부담이 큰데 안전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주거비가 많이 드는 것임.
- ▶ 그리고 청년취업지원사업 간 지역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와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지방으로 갈수록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강사의 질도 차이가 커서 거주지에서는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청년취업지원사업의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용경험이 있는 청년여성들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고 불만족스러워했음.

〈표 2〉 대졸 신규취업자의 부모와 동거 비율

(단위: %)

인문사회	출신대학 소재지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전국
남자	54.0	64.8	51.2	51.0	46.4	54.7
여자	72.5	79.0	62.5	67.2	61.8	69.9
전체	64.0	72.0	56.9	58.8	54.4	62.5
남-여	-18.5	-14.2	-11.3	-16.2	-15.4	-15.2

주)분석대상은 2012년 8월 혹은 2013년 2월 졸업한 취업자로서 졸업 당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자에 한함. 조사기준일은 2014년 9월 1일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3GOMS).

- ▶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 분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여성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열심히 취업준비를 한 여성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었음.
- 이 모든 사항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차별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엄중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시장 이행 이후 단계

📍 노동시장 이행 이후 단계에서는 첫째, 질 낮은 일자리로의 진입과 이동, 둘째,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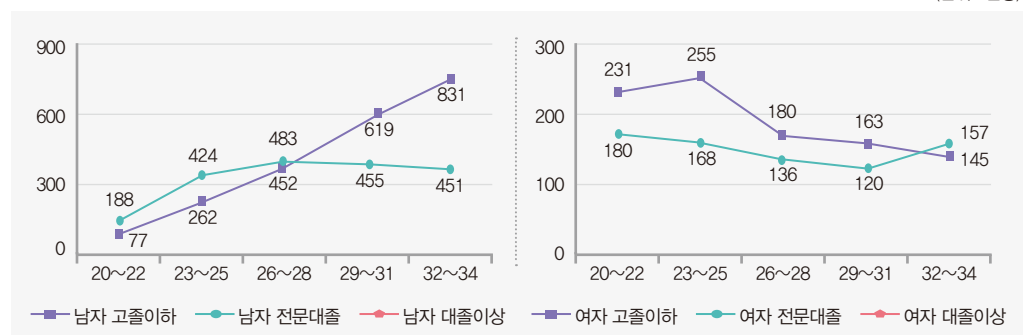
-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의 질을 성별로 비교해 보니, 임금, 기업 규모, 고용형태, 근로복지 수준 모두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 그리고 일자리 질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이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두 번째 문제점인 고용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 ▶ 우리의 정책대상인 청년여성은 주로 '미혼'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년여성들의 향후 경력개발에 있어서 경력단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일·가정 양립도 기대할 수 없다.
- ▶ 청년여성 FGI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여자선배들의 사례를 보면서, 일과 가정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 ▶ 즉 일을 계속하려면 절대 아이는 가져서는 안되고,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의 회사를 다녀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일·가정 양립은 지원제도뿐 아니라 기업의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성들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갖고 있었음.

- ▶ 연령과 직급, 고용상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여성들은 성희롱이나 폭언, 업무차별, 회식문화 등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
- ▶ 따라서 청년여성들이 조직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고충상담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력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연령대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단위: 천명)



주) 원자료는 연령 5세 단위로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본 결과에 오차가 있음을 감안해야 함.
자료: 통계청(2015.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표 3〉 연령별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합계
남자(A)	20~22세	116.8	178.7	130.0	120.8
	23~25세	134.8	186.0	175.5	152.7
	26~28세	191.0	200.1	214.2	203.5
	29~31세	209.5	224.8	264.5	240.6
	32~34세	231.3	258.6	301.1	273.7
	합계	173.3	222.6	262.2	219.3
여자(B)	20~22세	103.7	146.6	120.5	120.5
	23~25세	137.2	163.9	164.6	164.6
	26~28세	159.6	180.4	190.0	190.0
	29~31세	160.3	191.3	206.9	206.9
	32~34세	173.2	196.3	210.9	210.9
	합계	139.9	176.1	212.2	182.3
남녀임금비 (B/A)*100	20~22세	88.8	82.0	92.7	99.8
	23~25세	101.8	88.1	93.8	107.8
	26~28세	83.6	90.2	88.7	93.4
	29~31세	76.5	85.1	78.2	86.0
	32~34세	74.9	75.9	70.1	77.1
	합계	80.7	79.1	81.0	83.1

주) 원자료는 연령 5세 단위로 가중치가 부여되므로, 본 결과에 오차가 있음을 감안해야 함.

자료: 통계청(2015.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3. 정책제언

〈표 4〉 청년여성 취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요약)

단계	문제점	정책과제
노동시장 이행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률 낮은 전공분야에 여성 집중 분포 ■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 부족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에 청년여성 정책 수요 반영 ■ 취업취약 전공분야 여대생 취업지원 강화
↓		
노동시장 이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독립의 어려움 ■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지역간 편차 ■ 기업의 여성채용 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거주 청년여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청년취업지원사업의 편차 해소 ■ AA에 '신규채용 여성비율' 지표 추가
↓		
노동시장 이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낮은 일자리로의 진입과 이동 ■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 ■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의 경력지원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제도 개선 ■ 고용평등상담 기능과 근로감독 강화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문화 확산

노동시장 이행 이전 단계

- ④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에 청년여성 정책수요 반영
 - ▶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및 연수기회 제공
 -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추진체계에 여성전문가 참여
- ④ 취업취약 전공분야 여대생 취업지원 강화
 - ▶ 전공별 인력수요에 기초한 대학입학정원 조정 및 진로교육 강화
 - ▶ 취업취약 전공분야 취업지원대상에 자연계 졸업자 포함
 -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에 자연계 여대생 취업지원 추가

노동시장 이행 단계

- ④ 지방거주 청년여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 정부의 주택지원 사업대상 확대
 - ▶ 정부의 주택지원 사업에 일정 비율의 여성퀴터나 우선순위 부여
 - ▶ 지방 거주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지원 사업(신규)
- ④ 청년취업지원사업의 편차 해소
 -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 강화·확대
 - ▶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지역별, 성별 성과 및 수요 분석
- ④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
 - ▶ 점검지표에 '여성인력 신규채용 현황' 포함
 - ▶ 시행계획서에 '고용형태별 여성인력 현황' 포함

노동시장 이행 이후 단계

- ④ 청년들의 경력지원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제도 개선
 - ▶ 인턴제를 활용한 대체인력 풀 확보 방안 모색
 - ▶ 지자체와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하여 대체인력 경력쌓기 사업
 - ▶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업무재배치 컨설팅 지원
- ④ 고용평등상담 기능과 근로감독 강화
 -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 확대
 -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의무화 및 고용평등상담실 기능 강화
 - ▶ 모든 지방노동청에 근로감독 담당부서와 전담인력 강화
-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문화 확산

4. 기대효과

- ④ 청년여성에 특징적인 취업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
- ④ 현재까지 여성에 초점을 둔 청년고용정책이 거의 없었으나 향후 청년여성의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둔 청년고용정책 도입될 것으로 예상
- ④ 청년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예방 정책이 여성가족부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향후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의 참여가 기대됨
- ④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청년고용정책을 보완하고, 청년여성에게 특화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청년여성들이 부당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용구조와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참고자료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3GOMS).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